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정 영 길 원광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선비 정신과 사랑방 문화

어느 정도 보편화되면 문화가 최고의 상품이 되어 국가 경쟁력의 축이 될 수밖에 없다.

조선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장수 국가다. 힘이 아닌 교화를 통해 다스리려는 분명한 의지가 있었기에 오백 년이 나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다.

원래 선비라는 말은 몽고어 '박시'에서 왔다고 한다. 또 신체호는 선의 무리 즉 선비(仙臺)가 어원이라고 하고, 김동욱은 선비(先輩)와 같은 개념으로 신라의 화랑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향을 끼친다는 '선비 논 데서 용 난다'는 속담도 이래서 생겨난 듯하다.

선비는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며 학에 일치(學藝一致)와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추구하였다. 문사철(文史哲)을 통해 이성적 판단 능력을 높이고, 시서화(詩書畫)를 통해 감성 근력을 키웠다.

원칙을 지키고 그 범위 안에서 상황에 따라 입기응변을 하는 유연성(經緯史), 남에게 너그럽고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의 일은 뒤로 미루는 책임의식(先公後私), 강자에게 당당하지만 약자에게 도움을 아끼지 않는 따뜻한 마음씨(抑強扶弱) 등이 선비 정신의 대표적 덕목들이다.

지고 있었다.

이런 선비 정신을 구현하는 열린 공간이 사랑방이다. 우리나라 전통 가옥에서 사랑방은 가부장적 주거 공간인 동시에 손님과 정담을 나누는 문화 쉼터이기도 하다.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사랑방 문화나 선비 정신은 오늘날 되살려야 할 빛나는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국제적으로 자랑할 만한 명실상부한 한류 상품이 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인들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며 한국인은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이 바람직할까? 한국인의 정체성이나 이미지를 고취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영국'하면 신사의 나라를 연상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분명한 국가 캐릭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종교칼럼

하이불류(和而不流)의 철학

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든 인공지능이건 간에 감정에 치우침이 없는 평상심이 승패의 관건이 됩니다.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을 보면서 하이불류(和而不流)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화하되 같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

화음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다름에 대한 인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화음은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음악의 화음을 인간세계에 응용한 철학이 하이불류의 철학입니다. 하이불류는 '서로 다름을 모아 새로운 화합의

소리를 만들어내라'는 뜻입니다. (나아불)과 流(흐를 류)는 그러나 절대로 한 쪽으로 치우치거나 일방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둑을 두면서 상대의 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바둑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서로 서로 한수씩 나누어 뒤야 합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중용의 '하이불류' 철학이 생각나는 것은 선거 또한 바둑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더 나은 정책 대결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밤과 낮으로 돼 있습니다. 숨은 것과 나타난 것을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부국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 한쪽 날개로는 비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불교 3대 종법사인 대산종사는 "최대의 행복은 최대의 불행은 넘어야 오나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부처님이 인욕 선인이었을 때 가리왕에게 팔다리가 찢기는 고통을 당하며 넘기신 공덕이 없었으면 어찌 부처가 될 수 있었겠는가?"

내가 사랑받고자 하거든 남을 사랑하고 내가 마음 받지 않고자 하거든 남을 미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지만 정작 본인이 복을 지을 자리는 게을리 합니다.

화하되 주체를 세우고, 자신의 색깔을 나타내되,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하이불류의 철학이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社說

뜨거워지는 선거판, 불법 발붙이지 못하게

4·13 총선 후보자 등록이 어제부터 시작돼 오늘 마감된다. 여야 공천자와 무소속 출마자들은 속속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는 선거 무드가 고조되면서 혼탁·과열 양상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는 점이다. 공주시·전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적발된 위반 사항은 모두 49건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분거지 확보를 위해 혈투를 벌이고 있는 광주·전남은 혼탁이 가장 우려되는 지역이다.

만능 위법 소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미 광주 동남갑 선거구에서는 산악회 활동 과정에서 탈법으로 고발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과 지지자 등 5명이 구속됐다.

투표에 앞서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불·탈법·회계를 치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이 어렵게 된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선관위와 검·경은 위법의 경증을 가리지 않고 엄중하게 조치를 해야 한다.

기아차 운송회사·화물차주 상생 모색을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에서 생산한 상용차를 운송하는 화물차주들이 완성차 운송 업무를 위탁받은 현대글로벌비스 측은 운송료 인하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화물연대 광주지부 개개리어분회 등에 따르면 4개 업체 소속 화물차주 110명은 현대글로벌비스 측이 운송료 현실화를 명분으로 오는 7월부터 운송료를 깎으려 하는 것에 반대에 파업을 나선다는 것이다.

운송료 인하는 결과적으로 차량 1대를 '공짜'로 탈승해 달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

러니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

현대글로벌비스 측은 앞서 지난 2014년에도 광주~목포항 구간 운송료를 기존 6대분 지급에서 5대분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공지문을 보냈다가 화물차주들의 강력한 반발과 '갑질 논란'으로 거둬들이지 못했다.

이러한 현대글로벌비스의 입장에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차 그룹은 지난 2006년 이미 '대·중소기업 상생 프로젝트'를 가동시킨 바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기 고

결핵으로부터 건강한 사회



민 영 돈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회장

그 심각성에 강한 두려움과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데, 다름 아닌 제3군 법정감염병 결핵이다.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당황스러운 결핵의 실체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감염성 질환 중 발생 및 사망자가 가장 많으며, 2000년 이후 OECD 가입국가 중 환자 발생률과 사망률 1위를 차지해 국가 위상을 실추시키고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03년부터 증가추세이던 국내 결핵신환자 발생이 201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 신고된 결핵 신 환자는 3만 4869명으로 전년 대비 3.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신속한 결핵환자 발견과 맞춤형 관리, 결핵관리기반 강화, 투자와 관심 집중 등 2011년도부터 정부 및 관계기관의 국가 결핵 조기 퇴치를 위한 강력한 의지 및 실천의 성과로, 관계자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함께 근본적인 결핵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

과 노력을 당부드린다. 우리가 겪은 지난해 몇 달간 메르스 사태로 인해 사회가 집단 공황상태에 빠지고 국가 위상과 국민 자존심이 곤두박질치며, 산출이 불가능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물론 결핵은 만성감염병인 특성상 메르스 사태와 같은 짧은 기간에 급박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높은 국내 결핵감염률, 인구의 고령화, 20대의 높은 환자 발생률, 국내 거주 외국인 결핵환자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진다면 다제신상, 광범위내성 결핵 등 약이 듣지 않는 슈퍼결핵, 학교 등 집단 내 결핵발생, 취약계층 결핵발병 등 메르스 못지않은 사회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

결핵은 과거에, 또는 재개발국가, 빈곤층의 문제이지 우리에겐 그저 추억의 질병으로 방심한다면 또 다른 결핵문제의 시발

점이 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고 말 것이다. 지금도 결핵은 우리 곁에 해마다 230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새로운 환자가 3만4000명 이상 발생하는 중요한 보건문제 중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제(24일)는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정부가 법률로 지정된 결핵예방의 날이었다. 오랫동안 일선에서 결핵환자를 치료해온 한 의료인의 한마디가 머리를 스친다. "대표적인 사회적 질병인 결핵은 결핵환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질병"이라며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도 포용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따뜻한 사회적 시선과 지원이 요구된다 하였다.

100세 시대의 도래를 다투어 외치는 오늘날! 더욱 건강한 개인과 감염병인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노력과 시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기침이 2주 이상 지속하면 결핵을 의심하고 꼭 진찰받기를 권한다.

無 等 鼓

한 희생'의 의미가 짙게 스며 있다.

공천에서 배제된 더민주 정경래 의원이 "성질도 있고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 잔칫상 대기머리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경선에서 탈락한 한 지인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그동안 보내 주신 응원과 격려에 감사하고, 성원을 잊지 않

고 더 좋은 인연으로 이어 가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마지막 문장을 읽다가

희생

가슴이 먹먹해졌다. "오늘에야 목련이 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온한 봄날 되시길 바랍니다"라고 쓰여 있었는데,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땔 수가 없었다.

"원치 않는 희생을 했다"는 불만이 섞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3선 전병헌 의원은 "석과불식(碩果不食: 가장 큰 과일은 따 먹지 않고 다시 종자로 쓰는 것)의 상징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 다시 시작하겠다"며 백의중군을 선언했다.

이 말에도 "역을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가1(일간)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제부 220-0663 (대표 FAX 222-4918) (FAX 222-4938)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경치부 220-0632 문화부 220-0661 (FAX 227-9500)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사 회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경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자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